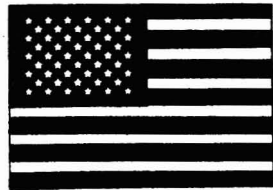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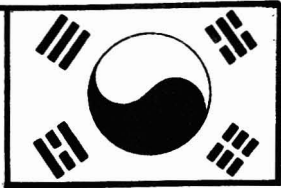


April 1982 Vol. 11 No. 3 Published by the Seattle-Wash. Korean Assoc.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Myung Bo Um, Publisher
Yong M. Park, Editor
Phone: (206) 682-4252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 차례

권두언..... 1

한인회 소식.....6/10

공지사항.....11/17

부동산투자방법...18/21

생활정보·교양...22/32

한인회 논단..... 33/36

한인회 문단.....37/41

4
April

한인기업의 발전을 기원 합니다.

지점장 염동희외 직원일동

주요 업무

1. 예 금...수출입 및 대출 관련 예금
2. 송 금...우편 또는 전신송금
온라인 송금
3. 수출입...신용장 개설·통지·매입
상업어음 추심등 일체
4. 대 출...수출입에 관련되는 무역금융
5. 기 타...무역상담·신용조사



한국 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SEATTLE BRANCH
600 UNIVERSITY STREET
SEATTLE, WASHINGTON 98101

(206) 622-7821

권두언

선교사 가족의 노래

정든 고국을 떠나 먼외지로 파견되어 가는 선교사 가족이 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의 뱃길에 무척 시달렸다. 지루하고 괴로운 항해끝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들이 정착할땅이 눈앞에 전개되고 삼류할 시간이 박두해 왔다. 그때 그 선교사 가족은 간판위로 올라갔다. 가족들이 모두함께 손을 잡고 둘러섰다. 그들은 노래를 불렀다.

"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네 그속에서 놀던때가 그리웁습니다 " 이이야기는 가슴을 뭉클하게 해준다. 파도와 배멀리에 시달린 그들에게 있어서 목적지에 안착하는 일은 큰 소망이 아닐수 없었다. 그들이 소망하던 목적지는 감격과 환호성을 자아내게 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새땅의 풍경과 신비를 넘어서 다른 물결이 일고 있었다.

비단 그선교사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이 노래는 많이 불려워 지고 있다. 무심코 혼자서, 혹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 노래를 부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지금도 이 땅의 여러곳에 산재해 있는 많은 실향민이나 이민동포들의 가슴에서는 이 노래가 메아리 치고 있다. 비단 그것은 실향민이나 이민동포에게 국한됨일은 아니지만. 고향을 그리워 하는 마음, 고향을 아끼는 마음은 사람의 본성이다. 철을 따라 환경이 바뀌어지고 여러가지 색깔로 조화를 이룬 꽃들이 피고 지는 고장에서 자라나지 않았을지라도 고향을 그리는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다. 흔히 영원한 그리움은,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 고향에 대한것이라고들 말한다. 사람에게는 본래의 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동경심이 항상 잠재해있다. 그 동경심의 대상은 특정한 지역일수도, 사람일수도, 학문일수도 있다.

그것이 어떤 이념과 사상, 나아가서는 이상이 될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 의미에서의 향수는 많은 추억기 얽혀 있는 특정한 고장에대한 그리움이다.

● 한미수교100주년기념행사 ●

한미수교100주년을 맞이하며 한인회에서는 범교포적인 행사를 승화 시키기 위하여 한·미국인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차례의 회합을 가졌으며, 아래와 같이 행사 내용을 정하여 준비중에 있으며, 많은 교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일시: 1982년 5월 22일(예정)

장소: U·W Hub Hall

행사내용

1. 교민예술편제: 시애를거주 교포들로부터 구성된 예술인의 재능을 미국사회에 고시하는 내용.

가. 음악회: 독창, 4중창 및 합창.

나. 고전무용: 어린이 및 일반특기자.

다. 태권도시범: 태권도장의 협조로 시범경기.

라. 판소리: 학생 및 일반특기자.

마. 고전악기: 거문고 및 가야금.

바. 시예및동양화시범: 특기자(박건이용).

사. 제기차기시범: 특기자(박건이용).

2. 백일장: 한·미수교100주년기념을 위한 내용.

가. 참가자격: 시애를 및 인근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 및 일반인.

나. 참가내용: 시, 신문, 그림.

다. 장소: 추후 발표함.

위의 행사에 관계되는 특기자 및 참가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1982년 4월 15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시애를-와싱턴주한인회

전화: 682-4252

시애를-와싱턴주한인회

경로 잔치를 마치고.....

한인회 주최로 약 7년만에 마련한 경로 잔치가 4월 3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본회 전 임원들이 동반 서주하며 준비하였고, 시애를에 있는 몇몇 동창회와 일부 교회 여전도회가 도와주었고, 뜻있는 인사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마련한 자리라 조출하면서도 화기롭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날 경로잔치에 모였던 노인들은 비범함과 과일등을 틈틈이 품습과 연어가 다른 이민생활과 살아온 길을 얘기하기도 했고, 밴드와 가수노래에 맞춰 젊은이 못지 않게 춤 솜씨를 보이며 장구를 치며 노래를 부르면서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도모로 밝달한 과학문명과 물질문명의 시대로 급변하면서 점차 소외되어가고 마땅 이민생활과 해가족 시대니 되니 하면서 나이드신 부모를 본의 아니게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손수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경로사상이나 중요정신이 아예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노인을 반대하면 반대하는 그 사람도 노인이 되어 똑같은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것이 몰트르듯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인내와 희생으로 자식을 키워온 보람을 느끼게 아적 젊은 우리들이 해드려야 할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인들을 외면하는 반면 현재 이곳 시애를 지역에는 이민생활에 어려운 노인을 여러 가지로 보살피고 도와주는 개인이나 단체(교회)도 많으나 그것은 손으로 꼽을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쏟아나오는 노인 공경 표어나 각종 구호보다는 진정으로 노인을 공경할수있는 자세와 실천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공원의 벤치나 공허로이 안아있는 노인들이나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시간 보내기에 고심하는 노인들 그리고 아파트에서 외로움에 처쳐 자살한 노인을 생각하면 어디까지나 남의일 같지가 않습니다. 알맹이 없고, 겉으로 화려하며 거창한 행사보다는 마음에서 저절로 일어나오는 그런 일과 대접을 할수있는 기회가 되지 않었나 하는 마음에서 경로잔치를 마련했었습니다. 한 평생 오직 가정과 자식을 위해 살아온 우리 노인들, 이번의 행사로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급변하는 시대에 살지만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데서 참된진리, 인간 생활과 행복이 가짜지리라고 느꼈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고 합니다. 이날 모인 노인들 가운데는 흡족해 하다못해 눈물까지 흘리면서 고맙다고 하신분도 있었습니다.

나이들면 어린애가 된다는 말처럼, 조출한 자리였지만 그 로록 만족하고, 흥겨워하는 모습에 본회 전 임원과 도와 주신분들의 가슴이 부듯했던 하루였습니다. 이번 경노 잔치를 준비하면서 적극 도와주신 분들이 노인을 위한 행사라면, "무엇보다 먼저 도우자" 하면서 서슴없이 도와 주실때는 아직도 우리 에게 참된진리와 뜨거운 정의가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이 몽클하였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노인들께서 하루빨리 범고포적인 노인회가 결정되어서 미국정부 기관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간절 합니다.

끝으로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 주신분들, 음식 솜씨를 보여주신분과 현장에서 도와 주신 부인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982년 4월 5일

씨애틀 - 와싱턴주 한인회 회장 엄 명 보

DO YOU NEED A LAWYER?

전문 변호사 안내

로날드·부라운

ESTEP & LI
ATTORNEYS AT LAW
2110 Exchange Building
2nd and Marion
Seattle, WA 98104

Office: 682-0565
Home: 821-4465

통역있음

해 명 서

존경하는 고민 여러분

본인은 씨애틀 한인회의 "정치적행위에" 대한 고민 여러분께 해명해 드립니다. 이미 신문 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2, 3개월간 타주의 각 한인 단체와 이곳 와싱턴주의 각 한인단체의 이름으로 한국정부 통일정책, 및 캐나다에 거주하는 최 용희등의 대통령 암살 음모등에 대한 지지및 규탄 성명서를 보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씨애틀-와싱턴주 한인회가 참여치 않았던 점에대해 극소수의 고민들께서 오해가 있는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해명을 회보를 통해 알립니다. 주 씨애틀 총영사관으로부터 2-3차례의 성명서를 보도해줄것을 부탁 받았으나, 본회가 1967년 비 영리단체로 등록되면서 회칙에 필히 삽입이 되어야 할 조항때문에 부득히 이에 참여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회칙의 제 5조에 의하면 "본 한인회는 본회의 항구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정치행위를 금하며, 어떠한 종교 단체와 (특정 종파를 뜻함) 관계를 맺지 않는다" 하는 조항이 있는 관계로 이사회와 임원회에서 점치성명서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본 회가 정치참여나, 손수냐를 본회 전임원은 호의 하였으나, 비 영리단체로서의 특수성을 지켜 봉사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본자세를 정립하지 않을수 없는 한인회의 현실을 알고 넘어가자는 전임원들의 순수하고, 뜨거운 정신에 본인은 이 론없이 동조 하였습니다. 본 회의 전임원은 개인적으로는 모두가 찬성 하고 지지하오나, 금년도 본회를 운영하는 전임원들은 회칙과 순수봉사의 범주를 벗어난다면 한인회의 본래의 목적과 비 영리 단체로서의 특수성을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특수성과 의견의 모듬을 총영사관측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본인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본회의 운영을 "본 회의 회칙" 대로 운영할것을 기본으로 하며, 주체의식과 초심을 가지고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 수행할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고민여러분! 위에 설명드린 이유로 본의가 아니게, 다른단체와 같이 참여치 못했던점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옵고,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진리와 신의를 바탕으로 더욱 밀어주시어서, 더욱발전하고, 명량한 한인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1982년 4월 15일

씨애틀 - 와싱턴주 한인회 회장 엄 명 보

• 한글학교 소식

금번 4월 17일 예정이었던 한글학교 개강을 무기한 연기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인회의 사정과 총영사관이 정부로부터 받아 한글학교 운영을 위하여 보조해주는 보조금등이 아직 전달 되지 않아, 교재구입 및 학생들을 위한 재료등을 구입치 못하는 등 아직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부득히 개강을 연기 하였습니다.

교민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한 이해를 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1982년 4월 17일

씨애틀-와싱턴주 한인회 교육부.

• 8.15광복절 경축 체육대회

씨애틀-와싱턴주 한인회에서는 제 37주년 8.15광복절을 맞이 하여, 성대한 기념식을 갖고, 각 교회의 협조를 얻어, 야외에서 전체교민들이 모여, 학생, 성인들의 교민 체육대회를 가지고 하루를 즐겁게 정입니다.

일 시 : 1982년 8월 14일 (토)

장 소 : 소프트볼 야구 (10인도),

배구 (학생 및 성인),

줄다리기, 달리기,

자세한 내용은 본회 체육부에서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주 씨애틀 총영사관의 공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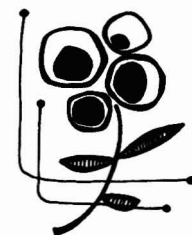
제 목 : 외국면허 소지자를 위한 의사, 치과의사 국가시험실시. 대한민국 보사부 소속 국립보건원에서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으로서 외국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그국의 면허를 취득할수있는 기회를 부여키위해 제 6회 외국 의사, 치과의사 면허소지자에 대한 국가시험을 82년 6월 24일 실시할 예정이라하오니 당해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소지한 자로서 응시할자는 주 씨애틀 총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전화 : 682-0132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1982년 4월 1일
-1982년 6월 23일

• 신임 박 관장 부임

주 씨애틀 한류 무역관의 신임 박 인규관장이 부임 하였습니다.



• 이 총영사 한인회 방문

신임 이 문수 총영사는 박 부영영사와 같이 한인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사, 임원들을 격려하고, 보다 발전적인 봉사를 부탁하고, 전 임원을 위해 만찬을 베풀었다.

씨애틀 주재 총영사관이 생겼을때 총영사가 한인회 사무실을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전임원은 더욱 뜻 깊게 맞이 하였다

• 체육 위원회 모임

3월 26일 본 회의 체육위원회 회의가 한인회 사무실에서 있었으며, 본회 주최로 열릴 범교포적이고 단합을 위한 종합 체육대회에 관한 제반 사항을 토의하고, 4월중 다시 회합을 갖기로 하였다.

• 교회 순방소식

엄 명보 한인회장은 지난 3월호 회보에 발표한 교회방문외에도 계속 교회방문을 하며, 한.미수교 100주년행사에 관한 협조와 교민들의 한인사회 발전에 많은 협조를 하여달라고, 요망하고 있으며, 방문교회는 다음과 같으며, 아직방문치 못한 교회는 앞으로 계속 해서 방문할 예정입니다.

에덴 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성 권)

한인 침례교회 (담임목사 정 하 경)

한인 베델교회 (담임목사 김 영 규)

제 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담임목사 유 재 상)

워싱턴 루터교회 (담임목사 박기영)

•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한 협조 공문 발송.

5월 22일의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모금을 위하여 추진위원의 재정분과 위 (위원장 한 만섭)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의 회의를 갖고, 씨애틀 지역에 있는 교회와 이곳에 주재하는 각상사 지사들에게 엄명보 한인회장, 한만섭 재정분과위원장 명의로 모금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적극적이고도 많은 협조가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교역자 회의

지난 3월 29일 와싱턴주 교역자 협의회 (회장 김수명)가 오후 6시에 웨드럴웨이로 앞쪽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하여 예배와 회의가 있었다. 또한 이날 엄 명보 한인회장과 한만섭 재정분과위원장도 참석하여 한.미 수교 100주년 행사에 관한 최지와 협조를 부탁하는 인사말도 있었다.

• 제 2차 교포 간담회

지난 3월 20일 한인회 회의실에서 많은 교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회의 업무에 관한 제 2차 교포 간담회가 있었으며 이날 한인회 사무실 상근직원 채용문제 81년도의 재정에 관한 영수증 및 서류에 관한 처리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경노잔치준비 관계 및 각계의 협조 방안등이 토의 되었었다

• 한·미국인 추진위원 2차모임

4월 2일 오후 4시 다운타운에 있는 Rai - nier Bank 23층 회의실에서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한 한·미국인 추진위원 20명이 모여, 뜻있고 보람된 행사로 이끌기 위하여, 각계의 미국인들은 한국의 산업발전상과, 고유역사, 문화제등을 전시하고, 미국인들에게 수교 100주년의 뜻을 알리고,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이 행사등을 알리고, 미국학생들에게도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에 관한, 산본등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제 3차모임을 5월 7일 같은 장소에서 만나기로 합의 하였다. 이날 모임에 미국측에서는 전 씨애를 시장 Mr. CLINTON, 이스튼 와싱턴 대학교 총장 Mr. FREDERICKSON 등 10여명과 한국인 측에서는 엄 명보 한인회 회장, 이 문수 총영사, 안 병영씨, 김 형진씨, 서 광선씨, 신 호범씨등이 참석하였다.

•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버튼 제작 판매

본회에서는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모금의 한방법으로 기념버튼을 제작하여, 각 교회, 한인업소, 학교등에서 이를 판매하기로 재점본과외에서 결정하여 이를 주문중에 있으며, 4월 중순경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가격은 엄가로 제공할

예정이며, 많은 고포들께서 이를 구입하길 바라며 미국인에게도 많은 권유를 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이 수호씨 장로 장립

타코마한인 중앙교회에서 성가대를 지휘하고 계시는 이 수호집사께서 지난 3월 21일 동 교회에서 장로로 추대되어 400여명의 교인과 각교회의 목사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로장립식이 있었다.

• 각국 민속 경연 대회

Northwest Regional Folk Life Festival 에서는 씨애를 지역에 거주 하는 각국의 민속 무용 및 음악의 경연대회가 있으므로 출연을 바라는 요망을 본회로 보내왔으며 고유 음식도 선보이길 바라고 있으므로 희망자는 본 회에 연락을 바랍니다.

일시 : 5월 29일 - 31일

장소 : Seattle Center

• 미국 정부기관에 건의서 보내기 운동

워싱턴 주내에 있는 아시안 -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는 단체운동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있어, 이에 대한 애로사항과 예산부활을 위한 건의서를 미국정부에 내기로 하여, 본회에서도 현재 상근직원이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이에 동조하여 본회의 이름으로 미정부 및 의회에 건의서를 보내는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 이 문수 총영사 환영연

지난 3월 6일 씨애를 한인회 주최로 새로 부임한 이민수 총영사 환영연이 한일각 식당에서 5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엄 명보 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이곳에 거주하는 교민의 권익옹호를 위해 한인사회의 발전과 단합을 위해 크게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교민들과는 참되고도 폭넓은 대화를 하여주기를 강조 하였다.

한편 이 문수 총영사는 교민의 단합과 권익옹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답사를 하였다.

• 임원 회의

3월 15일 오후 6시에 한인회 회의실에서 업무수행에 관한 건과 경노잔치 준비를 위한 임원회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상근직원이 없는 관계로 임원들이 교대로 사무실에 나와 봉사하는 것과 경노잔치에 관한 음식물준비, 당일날 임원부인들의 봉사문제, 기타 준비사항등을 토의 하였다.

또한 김 현길 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사들이 참석하여 한인회의 보다 발전적인 업무수행을 돕는 방안등을 토의 하였으며 4월 10일 다시 회의를 갖기로 하였다.

임원회의 참석자 : 엄 명보, 김 금손, 강 성국, 김 정래, 박 우석, 유 열상, 박 용목

이사회 참석자 : 김 현길, 김 문규,

김 래, 이 기락, 전 영환

• 경노 잔치 성황리에 마침

본 회 주최로 4월 3일 씨애를 소재 Norway Center 에서 60세이상 노인들을 위한 경노잔치가 있었다. 이날 있었던 경노잔치는 씨애를 지역에 범교포적인 노인들이 없으므로 언어와 풍습이 다른 이국땅에서 의로움을 달래면서 사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잊혀져가는 경노사상을 고취시키며 의로를 해드리기위해 씨애를 한인회 주최로 7년만에 있었으며 약 400명에 가까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오셔서 본회 임원부인들과 이대 동창회장 (오 화실) 및 회원, 형제교회 여전도 회장, 경희대 동문회와 고려대학 동문회에서 마련한 음식등을 잡수시며 흥겨운 밴드와 가수들의 노래 가락에 맞추어 하루저녁을 즐겼다.

또한 창과 장구에 소질이 있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특기자랑을 하고, 젊은이에 못지않은 노래와 춤 솜씨를 보이며 시간가는줄 모르며 즐거움을 나누었다.

앞으로 범교포적인 노인들이 결정되면 미국정부나 기관에서 좀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며 노인들이 결정이 된다면 본회에서는 이의 결정을 위해 적극협조를 할예정으로서 있으며 뜻 있는 노인들께서 이의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노잔치를 위해서 자진하여 물심양면으로 크게 도와주신

여러 기관 및 인사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며, 노인들을 위한 효도 정신에 머리를 숙입니다. 특히 경노 잔치를 위해 출연해주신 장미원의 태미정과 2년 전 가수 생활을 은퇴한 김상열양에게 감사표합니다.

● 한국 국악단 공연

「한·미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 정부에서 하는 행사 중의 일부로 한국 국악인 25명이 씨애틀에 와서 공연할 예정이며, 이 공연을 위해서 U.W.의 음악교수인 Mr. J. Lieberman 과 총영사관에서 주관하며 많은 미국인들에게 알려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국악인들의 재주를 자랑합니다.

일시 : 5월 2일 저녁 8시
 장소 : U.W. 미니홀
 입장료 : 어른 \$4, 어린이 \$2, 50



● 한인회 사무실에 Answering machine 설치

전 한인회 이사장을 지내셨던 오준걸 장로님께서 한인회에 상근직원이 없어 외부 부러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 없었고 민들과의 협조 관계와 업무수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한인회에 Auto Answering machine (\$130) 1대를 기증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한인회 사무실에 직원이 없더라도 전화하신분의 성함과 전화 번호를 녹음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임원들이 곧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인회 재정보고 현황

(4/10 현재)

1. 수입지부

가) 회비 (경칭약)

- 45. 이형상 \$ 20, 00
- 46. 박제인 \$ 20, 00
- 47. 허신 \$ 20, 00
- 48. 임영철 \$ 15, 00
- 49. 이강남 \$ 10, 00
- 50. 이점태 \$ 20, 00
- 51. 유인섭 \$ 20, 00
- 52. 한만섭 \$ 100, 00
- 53. 송문익 \$ 30, 00
- 54. 이수호 \$ 20, 00
- 55. 김정부 \$ 20, 00
(Seattle)
- 56. 김동운 \$ 10, 00
- 57. 문유기 \$ 20, 00
- 58. 이석복 \$ 15, 00
- 59. 박성수 \$ 10, 00
- 60. 김성일 \$ 15, 00
- 61. 최순동 \$ 15, 00
- 62. 고광은 \$ 20, 00
- 63. 유열상 \$ 20, 00
- 64. 당병석 \$ 20, 00
- 65. 김영진 \$ 20, 00
- 66. 신순아 \$ 15, 00
- 67. 김운환 \$ 20, 00
- 68. 윤영홍 \$ 15, 00
- 69. 김길량 \$ 50, 00

- 70. 이손모 \$ 100, 00
 - 71. 최영실 \$ 10, 00
 - 72. 박춘석 \$ 50, 00
 - 73. 오은복 \$ 20, 00
 - 74. Hwan-Ja Perreault \$ 10, 00
 - 75. 김호영 \$ 10, 00
 - 76. 김홍기 \$ 20, 00
 - 77. 정낙영 \$ 15, 00
 - 78. 오혜경 \$ 30, 00
 - 79. 최금손 \$ 10, 00
 - 80. 황운경 \$ 20, 00
 - 81. 이종은 \$ 15, 00
 - 82. 김연섭 \$ 20, 00
 - 83. 최봉기 \$ 20, 00
 - 84. 김청작 \$ 20, 00
- 계 \$ 930, 00

나) 기부금

1) 일반기부금

- 30. 전영환 \$ 100, 00
- 43. 김홍식 \$ 500, 00

2) 광고비조

- 10. 동서한의원 \$ 150, 00
- 11. 이규영 \$ 100, 00
- 12. 박정일 약국 \$ 80, 00
- 14. 보혜사 한약방 \$ 40, 00
- 15. 유인섭(코메리칸) \$ 50, 00
- 16. Flower Studio \$ 30, 00
- 17. 김의여행사 \$ 50, 00

- 34. Ronald G. Brown \$ 60, 00
- 44. 동서 여행사 \$ 60, 00
- 3) 한미수교 1백주년
기념행사 관계 기부금
- 13. Korea Trade Center \$ 50, 00
- 35. Eagon Forest Products \$100, 00
- 36M Manna Trading Inc. \$ 20, 00
- 4) 경노잔치 관계 기부금
- 18. 한국 외환은행 \$ 300, 00
- 19. 우시흥 \$ 50, 00
- 20. 방길성 \$ 100, 00
- 21. 김길량 \$ 50, 00
- 22. 김동수(금바식) \$ 100, 00
- 23. 현대식품(조진기) \$ 100, 00
- 24. 권태원 \$ 50, 00
(Federal Way motel)
- 25. Home Grocery
이규조 \$ 100, 00
- 26. 에디운 변호사 \$ 100, 00
- 27. 이영주 치과 \$ 100, 00
- 28. 김종구 회계 사무소 \$ 50, 00
- 29. 서광선 \$ 50, 00
- 31. 이동립 \$ 500, 00
- 32. 임수잔 \$ 50, 00
- 33. 장미상회 \$ 30, 00
- 37. 광종세 \$ 50, 00
- 38. 황수철 \$ 30, 00
- 39. 총영사관 \$ 100, 00
- 40. 이문수 총영사 \$ 100, 00
- 41. 중앙일보(이종환) \$ 50, 00

- 42. 시애틀 장로교 한인형제교회
백합회 일동 \$ 100, 00
- 입장료 수입 \$ 75, 00
- 기부금 합계 \$ 3,625, 00
- 수입 총계 \$ 4,555, 00
- 2. 지출 지부
- 1. 3.1절 기념행사 잔여경비 \$ 83, 41
음식대 \$ 62, 09
영사기 렌즈 \$ 21, 32
- 2. Secretary of State, Non-Profit
Corp- Annual Report \$ 1, 00
- 3. State of Wash. Statement of
Registered Fee \$ 1, 00
- 4. 워싱턴주 평신도회 주최 3.1절
기념합동 기도회 확보대 \$ 37, 50
- 5. 한미수교 1백주년 예술제
장소 계약금 (Hub Hall) \$ 50, 00
- 6. 회보(제 2호) 인쇄비 \$1,000, 00
회보(제 2호) 라자료 \$ 88, 00
회보(제 2호) 발송 주소 라벨비 \$ 64, 64
회보(제 2호) 400부 발송 Bulk Mail \$ 10, 00
- 7. P.O. Box Rent(83/3까지) \$ 26, 00
- 8. 주요 기관 기념 확보대 \$ 42, 50
- 9. 제 2회 교민간담회 회의비 \$ 28, 47
- 10. 사무용품비 \$ 10, 70
- 11. 라자기 구입비 (\$1,200증) \$ 600, 00
(영사관에 지불)

- 12. 사무실 4월분 Rent Fee \$ 175, 00
- 13. 우표대 \$ 43, 24
- 14. Bank Service Charge
2월분 \$ 3, 04
3월분 \$ 5, 83
1월분 정정최소 \$ 4, 93
- 15. 한미수교 1백주년기념 버튼
1,000개 제작비용 계약금 \$ 150, 00
- 16. 사무실 전화요금 (3월분) \$ 58, 94
일반경비 소계 \$2,474, 34
- 17. 경노잔치 비용
장소 사용료 (Norway Center) \$ 450, 00
봉사로 (2인) \$ 40, 00
연예인 사례금 \$ 800, 00
각종음식물 재료대 \$ 257, 92
각종음료 (cake, 7up, 맥주류 등) \$ 144, 00
종이컵, 종이 접시의 \$ 67, 56
포스터 재료대 \$ 13, 10
고통비 및 소액잡비 \$ 50, 00
소계 \$1,822, 58
지출 지부 합계 \$4,296, 92

- 2월말 이월금 \$ 409, 88
- 3월중 수입액 \$4,555, 00
- 3월중 지출액 \$4,296, 92
- 3월말 (4/10) 잔액 \$ 667, 96

**워싱턴주 시애틀-타코마 지역 한양대학교
동문회 소식**

한양대학 동문회를 갖고자 하오니 새로
이민 오신 동문이나 아직 가입하지 못
한 동문은 연락 바라며 이번 5월 모임에
참석 바랍니다.

연락처 : 시애틀 지역
정문언 523-9111
(오후 5시 이전)
타코마 지역
김기동 584-5947
(오후 6시 이후)

모임 장소 : 시애틀 한일각 (587-0464/5)
모임 시간 : 5월 22일 (토), 오후 6시

E. O. C. 안내

사회 사업기관으로서 주 약소민족을 돕
는 기관으로 취업알선, 기술교육, 영어교
육안내를 하고있으며 한국인 직원이 있으
므로 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주소 : 4726 Rainier Ave So.

Seattle, Wa 98118

TEL - 725-8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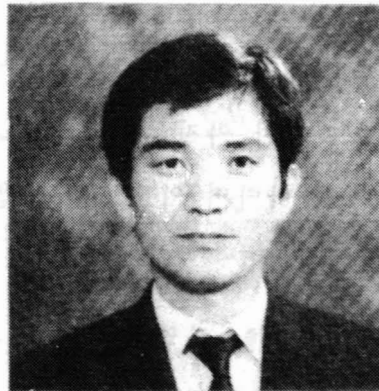
952-5595
(타코마)

대한여행사 941-8866 (시애틀)

KOREA TOURIST BUREAU

DANA PLAZA SUITE #5 (페이레스길 건너)
31260 PACIFIC HWY SO.
FEDERAL WAY, WA 98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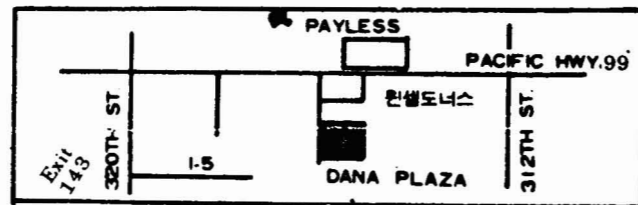
특별봉사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경험을 살려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해드릴것을 약속드리오니 일차 왕림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김홍열

★10년간의 경험으로
국내외 항공권판매서비스 여권갱신업무취급
이민, 시민권, 친지, 상용, 유학, 호적등본,
기타 서류번역, 각종비자연장



대표전화 (206) 941-8866 (B) 941-8748 (R)
(808) 946-9088 (하와이)

대표 김홍열

- ★ 주월빈빌회사 인사보좌관 (여행업무담당)
- ★ 한국에서 여행사 외국부장 6년
- ★ 하와이 대한여행사 부사장 4년
- ★ 하와이 주위축 법정통역관
- ★ 대통령공로표창 (#341F7)

韓美修交 1百周年 記念

백일장 대회 개최

1. 일시 : 1982년 5월 22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시간연수)
2. 장소 : U.W. HUB Hall 앞 잔디밭
3. 응모요령:

- 1) 자격 : SEATTLE, KING COUNTY 및 SNOHOMISH COUNTY
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 (국.중.고.대학재학생)
- 2) 참가인원 : 제한없음
- 3) 참가내용 : 시부, 산문부
- 4) 제 목 : 당일 대회장에서 발표함
- 5) 참가접수 : 1982년 5월 1일 ~ 5월 20일까지 (마감일 소인용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명기할 것
- 6) 접수장소 : 시애틀·와싱턴주 한인회 사무실
주소 : SEATTLE, WA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4. 심사위원 : 한인회에서 위촉하는 분으로 구성됨.
5. 심사내용 : 장원, 차상, 차하 (시부, 산문부)
6. 입상자 발표 : 1982년 5월 22일 (대회당일 오후 7시)
7. 시상장소 : 한인회 사무실
8. 시상내용 : 시부, 산문부 별 상감 및 부상 (장원, 차상, 차하)
9. 1) 용지는 당일 대회장에서 지급하고 소정 용지에 한함
2) 용의사랑은 접수기한내에 한인회로 용의라십시오
전화 682-4252 (오후 4시-8시)
- 3) 시상자의 글은 후원회보나 일간지에 발표함
- 4) 작품은 일체 반환치 않음

1982년 4월 일

주최 : 시애틀·와싱턴주 한인회
주관 :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 행사 추진 위원회

궁전속의 고급사교장!! ☎525-1335

장미원 식당

인기절정의 미인가수
드림의 일인자
만능 연주자

테미정 김규남
정창균

<식당> 오후 4시 ~ 새벽 2시
오후 4시 ~ 새벽 4시 금토

9 ~ 2am

8904 Aurora Ave N
Seattle, 98103

● 고민 단합 축구 대회

씨애틀 조기 축구회 (회장 김 길랑) 에서 제 1회 고민단합 축구대회를 아태 와같이 개최 한다고 하며 고민들의 많은 참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 태

일 시 : 1982년 5월 1일 (토요일)

장 소 : Delridge Community Center

4156 Delridge Wy S.W. Seattle

참가 자격 : 워싱턴주 한인림 (직장, 교회, 단체)

전 화 : 622 - 7371

● 가정생활에 관한 세미나 개최 안내

타코마에 소재한 한인 웨이쓰 신학대학 학생회에서 고도의 산업 사회가 몰고오는 부작용과 지역생활의 판이한 풍속 및 이질문화의 장벽이 그늘져 왜곡하는 가치관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까지 심각한 여러문제들이 이야기 되고 있는 현실을 중대시 하며 금년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생활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한다고 하오니 고민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전 화 문의 (206) 752-2020

1. 주제 : 에덴 동산은 회복될수 있는가?

2. 장소 와 일시 :

1) 타코마 중앙교회 : 5월 13, 14, 15
오후 7-9시

2) 씨애틀 형제교회 : 5월 20, 21, 22
오후 7-9시

3. 강사와 주제 :

1) 타코마 에서
최 용걸 목사님 : 부모와 자녀와 의 조화 (5월 13일)
송 천호 목사님 : 남편과 아내와 의 조화 (5월 14일)
김 상구 목사님 : 교회와 가정과 의 조화 (5월 15일)

2) 씨애틀 에서
정 남식 목사님 : 부모와 자녀와 의 조화 (5월 20일)
문 창선 목사님 : 남편과 아내와 의 조화 (5월 21일)
송 천호 목사님 : 교회와 가정과 의 조화 (5월 22일)

주 최 : 한인 웨이쓰 신학교 학생회

● 청룡의 밤 개최

워싱턴주 해병동지회 (회장 구 수함) 에서는 해병창립 34주년을 맞이 하여 오는 4월 17일 오후 7시 웨스트 씨애틀 컴퓨터 홀에서 고민을 위한 청룡의밤 파티를 가지고 많은 고민들이 참석하여 밴드와 한국인 가수의 흥겨운 가락에 맞추어 하루 저녁을 즐겼다.

● 워싱턴주 한국 음악인 동우회

82년도 새 임원진 구성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회 장 최 복 손
부 회 장 은 한 북, 김 손 임
총 무 박 창 훈
서 기 김 속 자
회 계 오 혜 연
연주 분과 의원장 김 미 경
교육, 홍보의원장 오 경 아

● 부림 인쇄소 개업

교포인 황 우민씨가 Burien 에 인쇄소를 새로이 차렸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서 다년간의 경험을 쌓았으며, 한글식자기를 설치하여, 사무용인쇄, 책자인쇄등을 하며, 특히 교포들에게는 염가로 제공한다 고 하오니,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라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을 위해서 전화로 주문하시면 무료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주 소 : 450 S.W. 153rd St

Seattle, Wa 98166

전 화 : (206) 433-8811



● 한인회 사무실에 벽시계 기증

지난 4월 10일 Federal way 한인 테니스클럽 (회장 송 태욱) 에서는 한인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동 테니스클럽의 활동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벽시계를 기증하였으며 테니스를 통한 고민들의 체력향상과 한인사회의 발전에 적극 협조 할것을 다짐하였으며 본회 전 임원은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 Federal Way 한인 Tennis Club

14명 회원과 5명의 임원으로 구성된 Federal Way 한인 Tennis Club 은 1980년에 창단되어 테니스를 통한 한인 상호 친선및 체력단련을 목적으로하며 Federal Way 인접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테니스에 관심있는 한인들 회원으로 모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1. 6월말경 전국가대표인 김동욱씨가 워싱턴주 한인테니스 강습회를 주관할예정.

2. 8월 14일 제 2회 광복절기념 미서북부 한인 친선 테니스 경기개최.

초청 계획 지역 : 포틀랜드, 밴쿠버림.

전 화 : 941-6867

회 장 송 태욱

불경기시대에 부동산을 사두면 유리하다

— 압류당한 주택을 좋은 조건으로 사려면 —



전통과 소식통에서 정보를
입수하도록

우선 압류당하는 집이 어떻게 생기는지 생
각해 보기로 한다. 대개 불경기 하에서는

주택세가 증가되어 자연히 세금 때문에 압
류당하는 집이 또한 증가하게 된다. 실
직자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히 압류당하는
집이 많아지게 된다.

또 이혼율이 증가하는 데에 따라서도 압
류당하는 집이 많다. 5쌍이 결혼하면
3쌍이 이혼 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부부가 이혼에 동의 하면 곧 바로 집을부
동산 시장에 내어 놓게 되는데, 현재의 경
제사정하에서 집이 곧 팔리지는 않고, 이혼
하는 입장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끌면서 세
금과 알부금을 물어 나가기도 곤란하므로,
자연히 집값이 내려가고 때에 따라서는 압
류당하는 경우도 면치 못하게 된다.

가옥주의 사망으로 압류당하는 경우도 많
다. 그 밖에도 상업 건물들이 입주자들
을 잃어버릴 경우라든지, 은행의 일부
상환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압류당하는 경
우는 얼마든지 있다. 은행의 일부 상환
금을 60일 이상 지불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은행이 압류를 시행하게 된다.

미국 전지역에 가옥주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수가 5천만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
평균 약 1%가 압력의 대상이 되곤한다.
물론 실업률이 높아가는 현 불경기 하에
서는 이 퍼센터이치가 더 높아지고 있다.

은행 압류율이 높아질수록 좋은 조건으
로 살수있는 주택들이 속출하는데, 이때
일수록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비밀을 지켜 가면서 매매하는 수가 많다.
물론 법적으로 반드시 집주인에게 압류를
연락해야 하고, 한번은 신문 지상에 공
개해야 하지만, 관계자들은 그래도 조건
이 좋은 집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 잘기회
를 주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것은 일반인들에게는 공정하지
못한 당연한 현상이다. County 서기나
또는 담당자들이 이 방면에는 정통하다.
일반인들이 신문을보고 조건이 좋은 집으
로 몰려들때는 이미 County 담당 차들에
의해서 소식을 들은 투자가들이 흥정을
버리고 있을 때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이 압류 당하
는 건물들을 매입할수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을까?

• 은행을 통해서

직접 은행의 일부 상환금 담당자 (Mortg
age Dept) 에게 부탁해서 압류당하는 가옥

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수 있다. 이 경
우 압류당하는 건물을 사들일 의사가 있
음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은행은 부동산 관리 보다는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므로 속히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전
을 유용시키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은행 정책이 곧 부동
산을 처분하는 데에 중점을두고 있다.
은행당국은 압류가 되는대로 즉시 경매
(auction) 에 들어가므로 그 날짜를 연락
해 주도록 부탁해 두어야 한다.

• 신문광고를 통해서

법에 의해서 압류광고를 신문에 몇번내게
되는데 보통 작은글자로 아주 구석진 곳에
공고 하는것이 샅때다. 지방신문을 보
면 정기적으로 또는 특별한 경우에 압류당
한 건물에 대한 경매 입찰을 공고하고 있다

•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재향 군인회 또는 연방주택국이나 압류
건물 관계에 밝은 부동산 회사등을 통해
서 소식을 얻을수도 있다. 대개 이들
부동산업자들은 VA(재향 군인회) 나 FHA
(연방 주택국)로 부터 압류 건물에 대한
소식을 얻는다.

• 변호사들을 통해서

부동산 관계 전문 변호사들이 가끔 압류
건물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을수도 있다.

• 카운티 서기를 통해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압당하는 건물에 대한 정보를 카운티 서기등을 통해서 알수 있지만, 이 정보를 빼내기는 마치성한 치아를 잡아떼는 경우와 비교해서 말할수있
있다. 결국은 정보를 입수할수는 있지만 그리 쉬운 작업은 아니다.

• 정부 기관을 통하여 정부가 소유한 건물이나 차압 건물을 정부가 직접매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매를 총괄하는 사무소는 BIM(Bureau of Land Management), Eastern Ave., Silver Spring, MD20910이다.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에서도 각 지역(대부분 대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정부가 소유하다가 민간인에게 팔려고 하는 건물은 관리하고 있으며, HUD(도시 주택개발국) 역시 대도시의 압류된 건물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FMHA(농경지 및 주택 개발국) 역시 농촌 지역의 압류 건물들을 팔고 있다. VA(제향군인회) 사무소에서도 부동산자들을 통하여 압류된 건물들을 민간인에게 팔고 있다.

• 정보를 수집한다면 자금 조달 방법 연구
압류하는 건물에 대한 정보 수집이 끝나면 다음은 자금 조달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를 잘 연구해야,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자가 될수 있다. 이러한 경기 하에서 잘 못 돈을 벌었다가는 오히려 흑뱀리다가 흑 뱀이는 경우가 될수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매자(은행, 정부등) 들은 빠른 현금 회수를 원하고 있기때문에 매매를 상당히 서두르게 된다. 우선 경매장에서 부러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한다.

대개 Downpayment을 10-20% 함으로서 일단 매매 계약이 되며, 30일 이내에 매매를 안결시켜야 한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압류건물의 매매시엔 건물값의 전액이 빠른 시일내에 지불해야 한다는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돈을 비는 작업을 정신없이 서둘러야 하므로 여간바차원이 아닐수 없다. 여기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면,
• 일반 은행용자

일반 저축 은행, 상업은행, 신용회사 (라인이 당하는 그놈 당신에게는
행운?)

등은 즉시 돈을 빌려줄수가 있다. 그러므로 일단 단기 대부 형식으로 돈을 빌어서 급한대로 압류 건물을 입수한 뒤에 곧 장기대부로 빌어서 단기 대부금을 갚아 버리는 방법이다.

• 정부 자금용자
VA, FHA - HUD, FMHA 에서는 정부매매시에 아주 적은 Down payment 으로 건물을 구입

할수 있도록 일반인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않다.

특히 압류된 건물을 VA로 부터 구입할때에 반드시 제향군인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 투자 연합체 형성
즉시 현금을 지불해야만 압류 건물의 매매가 성립된다고 한다면, 5명 이내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현금으로 집을 살수 있다.

• 제 2 저당
만약에 아주 좋은 가격으로 압류 건물을 사들인다면, 돈을 꾸어 주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현금 지불에 있어서 좀 삭감해줄 가능성이 많다. 즉, 제1저당을 할때 제 2저당이 가능하다는 추정 하에 우선 Down payment의 지불을 전액 연기 또는 일부 연기를 해줄수 있다.

압류 건물을 매매할때에 가격과 수리비를 잘 계산해 보아야한다. 값이 싸다고 무조건 사면안된다. 여기에 압류건물에 대한 가격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한번 가격을 책해보고, 그다음 수리하고 나서 얼마나 시랑가격이 나감것인가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 예를들면 현재 비어있는 두가구 주택이 있다고 하자, 겨울동안 비어있는 집이니까 많은 수리가 필요하다.

우선 근처 지역에서 최근에 매매된 집을

의 가격을 알아보도록 한다.(3등 정도). 그 다음 수리비를 계산하여 시장가격에서 수리비와 자신이 바라는 이익금을 빼 다음 구매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이 구매 가격에서 또 50%정도의 예상수리비를 빼고 경매를 부르기 시작해야 한다.

불경기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압류당하는 집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라인이 당하고있는 그놈이 당신에게는 행운을 가져다줄 기회인지도 모르니까 이 방면에 눈을 돌려 한번 행운을 잡아 볼적도 하다.

끝.



여러분의 IATA-ATC 공인

동서여행사

(206) 623-2157) 낮
623-2158) 밤
367-1935 밤



이영호

- * 국내및 국제 항공권 판매
- * 국내외 관광안내
- * 항공권 유통판매 알선
- * 각종 여행수속
- * 이민수속및 가족초청 서류작성
- * 시민권 취득 신청서류작성
- * 공증업무

SECURITIES BLDG SUITE 635
1804 THIRD AVENUE
SEATTLE, WA 98101



● 아시아계 노인들을 위한 안내

이 안내는 씨애틀 킹카운티 지역 아시아계 노인을 위한 미정부 기관에서 베푸는 혜택의 종류와 신청기회를 안내하오니 혜택을 받을수 있는 해당자는 관계기관에 연락하여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1. 경제적 원조와 정부의 시책

A. 주정부 사회 보건국은 의료, 식품권 가사돕기 및 양노원배정의 업무를 담당하며 소득이 적은 사람으로서 재산의 한정액을 넘지않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사무당국에 신청하면된다.

전화문의 721-4105

B.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중 신체장애자, 의료 혜택, 사회보장, 보조안보수입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해당자는 신청하면된다.

1321 2nd Ave Seattle, Wa 98101

TEL - 763-9222

2. 씨애틀시가 베푸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중에는 노인을 위한 신용 푸로그램이 있으며 이에는 수도물 쓰레기 철거등에 대한 할인제도가 있는데 정부보조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며 이 제도는 Seattle Water 의 사용자에 한한다고 함. 또한 시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보일러의 절연과 자동온도

조절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겨울에 사용한 요금을 연중 저렴한 여름의 요금을 적용시켜며 기타 노인신분증을 발급하여 특정한 상점, 식당, 목장, 택시, 배를 타는 경우 할인을 받을수 있으며 노인신문과 공증을 무료 서비스한다고 합니다.

자격 : 65세 이상노인 사용자 할인은 연수입 7,833불 부부는 10,227불 미만인사람, 종합 신청서를 제출하면 종합적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함.

주소 : 1331 3rd Ave Room #315
Seattle, (존스빌딩)

전화 : 625-4834

3. 취업

55세 이상의 수입이 적은 사람으로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직업이나 일반직업을 무료 안내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람은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인과 의논할것.

주소 : 1904 3rd Ave Seattle, Wa
98101 Security Bldg #717

TEL - 624 - 6698

한편 시장실에서의 노인들을 위한 취업을 위한 상담을 하고있는데, 전화문의처는
TEL - 625 - 4834 1331 3rd Ave #315
(존스빌딩)

4. 보건 관계

A. 치과에 관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이는 증세와 치료 종류에따라 취급안 하는 종류도 있으며 장소에 따라 65세이상 연령제한과 제한이 없는곳이 있으므로 먼저 전화로 문의하고 예약을바람.

1) 쇼어라인 커뮤니티 대학 치과 외생과.

16101 Greenwood Ave N. Seattle, Wa 98113 TEL- 546-4711

2) 와싱턴 대학교 치과대학 병원.

University Hospital Seattle, Wa
TEL - 543 - 5830

3) 킹 카운티 치과 선별검사

733 So Findlay Seattle, Wa 98108
TEL - 762 - 4070

4) 남동부 커뮤니티 치과병원

3800 S. Myrtle, Seattle, Wa98118
TEL - 723 - 0922

B.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하며 이에 는 2가지 혜택의 종류가 있다.

1) 국제 지구 보건소

국제지구 (전 차이나타운) 및 킹카운티의 주민에게 한국인 직원이 통역하며 진단, 치료, 선별검진, 양전, 자가간호등을 안내한다.

주소 : 416 Maynard Ave S.
Seattle, Wa 98104

TEL - 622 - 9650, 9651

2) 커뮤니티 가내 의료 서비스
집박을 나갈수 없는 노인을 위한 가내 간호, 물리요법, 가내간호보조등 봉사원이 직접방문하여 안내한다.

주소 : 200 W. Thomas st.
Seattle, Wa 98119

TEL - 282 - 5048

5. 정신건강에 관한 안내를 한국인이 봉사 하고있다.

주소 : 409 maynard Ave So. Seattle
Wa 98104

TEL - 447 - 3606, 8486

6. 62세 이상 저 소득층의 노인을 위한 시나 킹카운티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독신 연수입 11,450불, 부부의 경우 13,050불 이 초과 되지 않거나 소유총 재산이 15,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부 주택이나 아파트의 집세를 보조하는 것으로 많은사람들이 신청중에 있어 오랜동안 대기한다고 함.

신청소 : 킹카운티 주택공사

주소 : 15455 65th Ave So.
Tukwila, Wa 98188

TEL - 244 - 7750

씨애틀 주택공사

주소 : 120 6th Ave N. Seattle
Wa 98109

TEL - 223 - 4411

7. 소규모 가옥수리와 기후 대책

가옥의 문풍공사, 파이프공사, 전기공 등 소규모 수리를 위한 기술 및 노동력의 무료 제공등이 있는데 재료가 가옥주가 부담하며 연수입이 846불 또 1012불 (부부)을 초과 하지않아야함.

전화 : 632-0944, 324-0500
447-7802, 789-3008

8. 법률 문제

A. 에버그린 법률상담소

60세 이상으로 특정 수입이 없는분으로 SSI, 의료 식품등 가정에 관한 법률문제 그 외에 유언확인, 은행구좌, 생명보험및 주택에 관한 분쟁에 관한 상담을 한다.

주소 : 109 Prefontaine PL.
Seattle, Wa 98104

TEL - 464 - 5911

B. 천주교 씨애틀주교관구

55세이상의 저소득층으로 소규모 재산관리계획, 유언의처리, 부부의 공동 재산에 관한 합의, 채권채무관계, 소비자 보호및 부동산 문제등을 무료 상담한다.

전화 : 323-6336

9. 영양 (식사 제공)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오락시설을 제공하며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

로그 램으로 거주지로 부러 가까운 곳에 연락예약 하면된다고 하며 기부금을 자진해서 납부할수도 있다고함.

주소 : 444 Ravenna Blvd, #101
Seattle, Wa 98115

TEL - 525 - 8272

스피이스 (SPICE - 시 거주 노인을 위한 학교 푸로그래))

전화 : 587-3524

사업 : 노인을 위한 식사, 오락및 보건소의 운영, 이프로그래는 씨애틀의 공립학교가 운영하고 있음.

각 서비스 센터의 위치

West Ballard Area:

ADAMS Elementary School
6129 - 26th Ave. NW
Seattle, WA 98107
587 - 4341

Southeast Seattle Area :

DUNLAP Elementary School
8621 - 46th Ave. W.
Seattle, WA 98118
587-4342

West Seattle Area:

MADISON Junior High School
3429 - 45th Ave. SW
Seattle, WA 98116
587-4343

Lake City Area:

LAKE CITY Elementary School
2611 NE 125th St.
Seattle, WA 98125
587-4344

Queen Anne Area:

MCCLURE Junior High School
1915 First Ave. W.
Seattle, WA 98119
587-4322

Capitol Hill Area:

STEVENS Elementary School
1242 - 18th Ave. E.
Seattle, Wa 98102
587-4340

East Ballard Area:

WHITTIER Elementary School
7501 - 13th Ave. NW
Seattle, WA 98117
587-4345

North Greenlake/ Greenwood Area:

WILSON/ PACIFIC School
1330 N. 90th st.
Seattle, WA 98103
587-4346

10. 노인 권리 옹호회

60세 이상의 중산계 노인들의 법률 문제 해결을 도와 주기위한 봉사원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상담자가 도우며, 전화또는 직접방문하여 의는 한다.

주소 : 107 cherry st. Room

#302 Lowman Bldg.

Seattle, WA 98104

TEL - 623 - 7765

11. 교통 문제

A. 메트로 버스 요금 할인제도

65세 이상의 경카운리에 거주하는 자로서 I.D. 카드를 소지한자는 1회 승차때마다 10천만 내면된다고 함, 신청은 메트로 버스사무실이나 씨애틀 시청 시장실의 노인복지 담당과에서 한다. 전화 : 447 - 4822

B. SSC 교통 원조 푸로그래

60세 이상의 저소득자로서 씨애틀 시내에 거주하며 다음의 목적으로 무료 교통편의 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24시간에 예약하면 된다고함.

- 1) 예약된 병원의 방문
- 2) 필수적인 장보러 갈때
- 3) 예약된 관공서 방문
- 4) 특별한 사고행사 참여
- 5) 건강 선별검사

C. TEL - 285 - 3114

C. 동북쪽 경카운리 멀라이 씨서비스센터

주소 : 18220 96th N.E.

Bothell, WA 98011

TEL - 485-6521, 382-9704

D. 남부 경카운리 멀라이 씨서비스센터

주소 : 23830 Pacific Highway

S. Kent, WA 98031

TEL - 824-9181, 872-7812

의의 기관에 먼저 전화하여 자기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현재의 입장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학자금 점점 어려워질듯

펠그랜트프로그램 23억에서 14억으로삭감

예건에 산정책으로 정부지원의학자금 보조 받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정부지원의 학비보조금중 현재최대규모로 예산이 소모되고있는 케렌릭드 스튜던트 론 (Guaranteed Student Loans)의 경우, 케건은 오는 4월부터 1인당 대여액을 증가시키는 대신 대여 장학금 수여자를 대폭감소시킬것을 제한하고있다. 이 제한이 효력을 발휘하게되면 대학원생들은 대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현재 미국대학원생의 절반가량이 동대여장 학금에 의존하여 학업을 지속해온 실정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을 위해 설립된 펠그랜트프로그램의 예산은 종전의 23억에서 14억으로 삭감될 예정으로 알려져있다. 이경우엔 동프로그램의 호혜대상수는 36%가 감소된다.

은퇴한 부모를 두었거나 부모와 사별한 경우 혜택을 받을수 있었던 소셜세큐리티 페이먼트제도도 올해부터 그액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85년도에 가서는 제도 자체가 없어지게될 우려도 크다.

한편 예건예산삭감정책에 관련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등 일부 명문 사립대학은 이미 등록금인상을 발표하였으며 웨슬리안대학은 15년만에 처음으로 동고 지원생의

학비조달능력을 입학전형시에 고려한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전문가들은 웨스레이안대학의 새정책은 (너무 조급한 항목)이라고 평하고있다.

지난 3월 전국 3천3백여개 대학의 학생들은 워싱턴에 모여 학자금보조정책 후원을 국회에 청원할 예정이 있다고 한다.

끝.

이달의 金言

▶ 약간의 근심, 고통, 고난은 항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바다 짐을 안 실은 배는 안전하지 못하며 곧장 갈 수 없다.

〈쇼오펜하우에르〉

▶ 인생은 고통이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의 정도 차이에 불과하다.

〈G.B. 쇼오〉

▶ 위대한 사상은 반드시 큰 고통으로 해서 깊이 경작된 마음에서만 이루어진다. 고통을 겪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그대로 천박하고 평범하다.

〈K. 힐티〉

... 교통사고가 발생할때 주의할 사항들...

상대편 신원·증인·경찰협조·메모·변호사 연락 등 필요조치 취해야

교통사고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당하는 경우가 있다.

● 일단 스톱

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일단 자동차를 중지 하도록 교통법은 규정하고 있다. 차 사고가 났음에도 계속운전을 하고 가면 히트엔으로 큰피해를 신고 받을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일단 차를 멈추도록 해야한다.

● 부상자 확인

차를 정지한후 우선 사고로 인해 부상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부상자가 발견되면 선불리 부상자를 움직여서는 안된다. 선으로 도와준것이 후에 더 다치게 할수 있을 위험도있고 불리할경우도 많기때문이다.

● 교통정리

차 사고 발생시 자신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사고 주위의 교통을 정리하여 다른 차들의 접근을 못 하도록 경고해 적야 한다. 만약 밤이라면 조명 혹은 반사등으로 사고난것을 다른 차들에게 알리도록 서둘러야 한다.

● 경찰연락

사고를 맞았을때 절대로 상대편과 싸우지 말고 부상자 피해 유무를 막론하고 경

찰이나 하이웨이파트롤 (고속도로인경우)을 부르는게 좋다.

경찰보고서는 차후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문제로 법정투쟁을 벌이는 경우 큰 도움이 될수있다.

● 상대방 신원확인

교통사고가 나면 침착한 자세로 종이에 상대방의 자동차면허 번호, 상대방이름,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및 보험카드를 요구 기록하는 동시에 자신의 것들도 주저하지 말고 요구에 응해주는 것이 미국 생활의 통례로 되어있다. 절대로 말싸움이나 물리적 충돌은 금물이다.

● 증인 기록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올때까지 기다리면서 사고 당시의 목격자를 찾아 그들의 주소, 이름, 전화번호등을 적어두면 차후에 도움을 얻을수있다.

● 경찰협조

경찰이 오면 기본적인 상황설명만 하는게 좋다. 한가지 주의할점은 사고의 원인이나 이유에 대한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는 구구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사고를 당하면 경찰진술서를 작성하기전에 누구나 변호사를 찾아상담할 권리가있다. 만약 사고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변호사에

의뢰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된다.

● 부상자 처리

심한 부상자가 있다면 누구를 시켜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데 신속히 오지 않으면 인근 병원에 옮기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게 좋다.

● 불필요한 언행 삼가

변호사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건이 이렇하고 저렇하고 등 불필요한 얘기를 삼가하는 게 좋다. 중요한 사항들은 자신이 메모해두고 간직했다가 차후에 전문가와 상담할 때 사용하도록 한다.

어떤 경우에는 차사고가 나면 한인들이는데 동양예의를 갖춰서인지 잘못도 안하고 (아임 쏘리 - I'm Sorry) 라고 불필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감 잘못했다고 해도 신분증등 교환하는 문제 이외에는 잘잘못, 이유등등을 교환 혹은 토론 할 필요가 있다.

● 체포 여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를 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다. 이럴때 사고에 대한 경찰의 질문에 어떤 언급은 불필요하다. 잘못이야기 하다가 잘못을 인정해 버리는 식의 표현으로 책잡힐 수도 있기때문에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와 이야기 할수있는 권리를 주장, 기회를 갖도록 한다.

● 보험

사고 이후 가입한 보험 회사에 정확히 보고를 하여야 한다. 즉 간접이며 올바른 보고를 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권리에 나쁜 영향을 끼칠수도 있다.

도움말 주신분 - 남성종합보험대표

전화 : (213) 738-8827

가나안 여행사
친절과 신용본위

- 국제 및 국내항공권 판매
- 각종여행수속
- 항공권 월부판매
- 이민 수속 및 가족초청서류
- 교포여권갱신업무
- 영문번역일체

**409 Maynard Ave. So., Suite 107
Seattle, WA 98104**
(한일각앞)
전화 (206) 624-6461 낮·밤

Fishing Regulations



고민들의 이민생활에 취미인 하나로 낚시등, 봄, 여름철에 바닷가로 많이 놀러가며, 해산물을 잡아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대한 사항을 사전에 알고, 지정된 량을 취득 함으로서, 감시원에게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간단한 해산물 수획규칙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License Fees:

- A. Game fish license: \$12.00
- B. Salmon, Steel Head, Trout: \$3.00
- C. Commercial Fishing: Depends on type of business: \$37.50 and up
- D. Food Fish (salt fish): no license is required (except salmon)

2. Limit of catch:

- A. Salmon: 2 Chinook, 3 Silver - over 20 inches
*write down place, date of catch and species on the punch card
*every person who has a salmon license and record card must be turned in on January 31 of each year to the Dept. of Fishery.
- B. Cod - 15
Rockfish - 7 (male only over six inches)
Mussels - 18
Oysters - 18
Flounder - no limit
Moon Snails - no limit
- Octopus - 2
Clam - 40 (not over 7 lbs)
Rock Crab (no sex, no limit)
Hake - no limit
Sea Perch - no limit
Smelt (river) - 20 lbs.

3. Pay Attention:

- A. Oyster - oyster must be taken out of the shell and the shells left at the seaside.
- B. Clams - put dirt back in the hole after you dig for clams
- C. Fishing - each person can have 2 fishing poles
2 fishing poles with only 1 hook OR 1 fishing pole with only 1-3 hooks

4. Close Season:

- A. Oyster - 7/15 to 9/15
- B. Crab - 4/15 to 5/25
Red Tide (shell-fish poisoning paralytic)
Information: 1-800-562-5632 OR (206) 753-5993

5. Licensing Purchasing:

- A. Commercial: 1-753-6590 (State Fishery Dept)
- B. Sports License: any Pay N Save, Ernst, Fred Meyer etc.

6. Penalty:

- Fine \$30.00 to \$1015 Jail 1 day to 1 year
- A. Bail forfeiture (pay fine)
- B. Plead guilty, then explain the fact to the judge.
- C. Plead not guilty, then trial will be scheduled

7. Public Park

- A. Do not catch or shoot birds or animals.

생활의 아이디어

• 가죽 잠바 떼빼기

가죽 제품은 대개 탄닌으로 다루어진 것이 많다. 그래서 바나나 껍질의 미끈한 부분을 가죽에 자주 문질러 주면 바나나 껍질 속의 탄닌 성분의 작용으로 가죽이 새 것같이 깨끗해진다. 그 밖의 핸드백, 구두 등 가죽 제품에도 이렇게 하면 깨끗해진다.

• 뚫어진 고무장갑의 이용

주부들이 부엌에서 사용하는 고무장갑은 뚫어지면 물이 스며들어 못쓰게 된다. 그럴 때는 손가락 부분은 잘라버리고 나머지 부분은 가위로 가늘게 돌려 잘라서 장독 등을 동여매거나 아이들의 도시락이 얼리지 않도록 매어주는 고무밴드로 사용하면 좋다.

• 흰 장갑을 오래 쓸려면

흰 장갑은 한번만 끼면 더러워진다. 이것을 막으려면 비누로 빨고 잘 헹군 다음 마지막 헹구는 물에 세탁용 풀을 약간 타서 헹구면 여러번을 깨끗이 갈수 있다. 이것은 풀이 얇은 피막을 만들어 때가 섬유속에 끼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 편리한 앞치마

부엌에서 사용하는 앞치마를 남비 집게나 뜨거운 물건을 들때 사용할수있도록 만들면 아주 편리하다.

앞치마를 세 부분으로 떨어지게 만든다음 윗부분만 박고 아랫부분은 그림과 같이 주머니를 달아둔다. 주머니에는 예쁜 수를 놓아 아름답게 꾸민다.



藥이 되는 野菜와 野草 무우

무우에는 단백질분해효소(蛋白質分解酵素) 아밀라제, 에스라제와 전분분해효소(澱粉分解酵素) 지아스타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와 변비에 효과가 있고, 세포의 노화 예방(老化豫防)을 해준다. 최근에 일본국립 암 센터 연구소에서는 물고기와 육류(肉類)를 구울 때 생기는 고온에 돌연변이(突然變異)의 발암성 물질이 생긴다는 것을 연구해 냈다. 그런데 그 발암성 물질에 무우 즙을 섞으면 그 변이원성(變異原性)이 소실되어 버린다고 발표했다.

약효와 사용법

기침, 감기, 기관지염, 위가 약한데, 과식: 무우를 입방 1cm 정도의 크기로 잘라서 그릇에 담은 후 벌꿀을 쳐두면 하루 이틀 경과한 후에 투명한 물이 나오게 된다. 그것을 식간에 마신다. 넣어둔 무우는 건져내어 냉장고에 넣어 보관한다.

가슴앓이, 설사, 담석, 각기, 변비: 무우즙을 식전이나 식후에 마신다.

두통, 코가 뻐, 코피: 무우즙 몇 방울을 코 속에 떨어뜨린다.

구내염(口內炎), 충치(虫齒): 무우즙을 입 안에 머금는다.

중풍의 예방: 무우즙과 벌꿀, 설탕을 조금씩 섞어서 마신다.



• 연방국채를 팔려는데 수수료 얼마나 되나?

Q: 연방국채 (일명 Fannie Mae Bond) 팔고자 하는데, 요즘의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요?

A: 브로커나 은행을 통할 경우, 보통 1만불 짜리 국채에 대하여 25불 내지 40불의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5만불 이상의 국채를 거래할 때는 수수료가 없고, 또 은행에 따라서는 고정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공부하기 싫어하는 딸 학업에 열중 시키려면

Q: 10살 짜리 딸을 가진 어머니입니다. 공부를 하라고 하면 공부가 싫증이나 나거나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공부 안하는 딸만 보면 속이 상해서 소리만 자꾸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로 하여금 학교 공부에 열중하게 할수있을는지요?

A: 소리 지르는것은 부정적인 방법입니다 우선 아이에게 공부는 아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과, 공부를 않으므로서 닦쳐올 결과를 차근차근 계속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공부가 어렵고 싫증난다는 사실은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이러한 아이의 감정을 시인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것을 극복하면 밝은 미래가 있음을 설명해 주시고 공부를 끝냈을때 오는 성취감을 지적해 주거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최근 학자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어려서 부터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버릇을 가진 어린이 일수록 성인이 되어 성공하는 예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습관은 부모를 닮는 예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귀찮게서 어려운 일도 참고 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라도 보여 주시고, 그 일이 끝난다음 갖는 자신의 성취감을 아이와 더불어 나누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십 시요.

- 알라스카 송유관건설 현장에 취직을 하려면

Q: 알라스카 송유관건설 현장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어떤 직종이 있는지요?

A: 알라스카 송유관 건축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내년까지는 없습니다. 아마 1984년과 1986년 사이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단 건설 회사들과 계약이 되면 건설업자들은 트럭 운전사, 용접공, 중장비 기구 기술자, 그 밖의 송유관 건설현장 경험이 있는 노동자를 모집할 것입니다. 이 계층의 직업을 완하시면 다음 주소로 연락 하십시오.

주소 : Northwest Alaskan Pipeline Co.
P.O, Box 1526 Salt Lake City,
Utah 84110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역사적 가치 감정은?

Q: 제가사는 집은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주위에서는 이 집은 빅토리안건축양식의 가족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A: 귀하의 거주지 주정부 역사물 보관소 (Historic Preservation Office)로 연락 하십시오. 각주의 역사물을 취급하는 사무소의 주소를 알려면 Dept of the Interior

National Park Service, National Register of Hitoric Places, 18th and C sts. N. W, Washington, D.C. 20240으로 연락하여 주소록을 받을수 있습니다. 역사물로 인정 받으려면 각 주의 건축가, 역사가 고고학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대체로 건물 자체가 50년이상 넘어야 하고 특수한 건축 양식이거나 특수한 인물과 연관이 있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신장개업
PALACE RESTAURANT

포홈식당

SEATTLE 최초의 수타국수 집
각종 북경식 중화요리

수타국수 전문 김치 무료제공
영업시간: 오전11시30분~오후10시(연중무휴)
넓은 주차장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남쪽으로 10분 거리)

723-1958
7119 Empire way So. Seattle 98118
主人 김원규 白



한인들 흑인에 대한 편견問題

意識化해서 수정치 않으면 고립運命

미국 사회는 총인구 2억 2천만여명중 80%가량이 백인이다. 나머지가 흑인을 비롯 멕시코계, 유대동양인등 각종 소수민족들의 복합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나라를 지배하는 인종은 앵글로색슨계통의 기독교인 (WASP)들이다. 강력한힘을 가진 백인들은 이땅을 정복한이후 거의 2백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심한 인종차별을 걸음으로는 폐쇄하였지만 실제적차별 (De Facto Segregation)은 의형적인 법의 테두리를 피하면서 지능적인 방법으로 인종차별의 벽을 두껍게 쌓아왔다는 사실은 갖가지 사회현상으로 입증되고 있다.

미국의 사회, 경제구조상 그리고 정치문화구조상 인종평등의 원칙은 일대사회개혁이 없는한 존재할수 없는 상황이다.

소수민족들끼리 친하고 융화하여 적극적으로 손을잡고 소수민권익투쟁을 벌여도 미흡한 이 마당에 같은 소수민족, 게다가 마이너리티 가운데 가장 공헌이 크고 또한 숫자적으로 가장 우세한 흑인과 멕시코들을 업신여기며우습게 생각한다면 미국내 한인사회는 완전히 고립될것이다.

고립되는 것은 고사하고 이대로 가면 큰변을 당할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한다.

서부지역 최대흑인 커뮤니티 주간신문인 Los Angeles Sentinel 지의 웨이스.

크리스마스 편집부장 (City Editor)은 "한인들의 흑인에대한 잘못된 인식때문에 흑인 상당수가 한인들에 대해 불만족스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흑인 여성언론인은 흑인사회에 바친 한인들의 인상에 대해 "한인들은 흑인지역에 들어와 지독한 물질주의 정신으로 흑인들의 돈을 벌어가면서도 흑인들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인것같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또 "흑인, 멕시코지역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도 같은 소수민족들을 업신여기는 한편 백인들에게는 호의적으로 친하려는 현상도 있다"면서 한인들의 소수민족간 유대문제에도 비협조적인 자세를 포집었다.

그러므로 한인사회는 이제부터라도 정상적인 의식구조를 갖춘인사들과 2-3세대이 공동투로젝트를 구상, 타소수민족들에 대한 한인들의 편견을 계몽하는 동시에 흑인사회와 멕시코사회 그리고 다른 소수민족사회와 연대하여 백인들의 인종차별에 공동으로 대처할수있는 자세로 한인사회는 제정비되어야 하겠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한 추한 한인사회를 고발하며 —

글 • 홍 손구 (샌프란시스코)

• 한 비과학적 머릿말

" 배부른 돼지가 되기 보다는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

지조와 신의와 명예를 저버린 사회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크라테스를 그리워 한다. 옛날 소크라테스는 진리에 대하여 무감각한 아테네 시민들에게 하나의 소파리(Gad-fly)의 역할이라도 해보겠다고 나섰다.

병들어 버린 세계속에서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우리 한인사회는 일부 작태를 개탄 하면서 많은 쇠파리들의 탄생을 기대한다. 필자는 지금 그 한 작은 부분을 담당코자 붓을 들었다.

세기의 역사 학자 H. G. Wells 는 단순히 먹고사는 생존의 차원에 머문 인류를, " 하나의 부대속에서 서로물고 뜯는 쥐 새끼들" 이라고 했다.

1972년 이태 미국 독서계에서 장기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Richard Bach의 소설 (Jonathan Livingston Seagull)을 생각한다. 비행기 조종사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항공잡지사의 편집인이 된 작가 Richard Bach 는 소설의 주인공 갈매기 (조나

단 리빙스톤) 을 통하여 엄치성없고, 방향 감각이 전혀 없고, (자기완성)이라고 신성한 임무에 대해서는 아랑곳없는 일차원의 세계를 풍자 고발한다.

먹다 버린 빵부스러기나 썩은 생선 대가리를 얻어 먹기위하여 보기 흉한 싸움을 벌리고 있는 너무나도 저속한 갈매기들의 세계 (조나단 리빙스톤이 구호증을 일으킨다) 가 바로 우리속에 있다.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한인사회의 주변을 맴돌면서 공수표를 휘두르며 감투는 썼다 벗었다, 벗었다 썼다하는 향아들이 있다. 결국 그들의 목표는 먹다버린 빵 부스러기나 썩은 생선 대가리가 아닌가?

• 초기 이민 사회와

그 혼 (정신)

백년에 가까운 우리 이민 개척자 초기의 선직자들은 먹고사는 문제를 뒤로하고 국권 회복과 민족공지를 우선 시켰다.

무엇을 먹을 까하는 생존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고)살수 있을까 하는 정신의 문제를 우선시켰다.

저들은 정신 혁명, 인격수양, 단결혼련을 우선시켰다. 1906년 상합 대 지진의해

실로 생사의 기로에 서있을때에 저들은 영웅적인 자세로 상항한 국인 연합감리교회를 창설하고 (저높은곳을 향하여)건기로 다짐 했으며 이것이 그 살아있는 이민역사에 문화제가 증거증의 하나이다.

저들은 십시일반으로 광복군 활동과 상해 임시정부 후원에도 여념이 없었다. 당시 유학생들은 그 하나가 다 애국의전초병이었다. 1940년 어느 유학생회총회 석상에서 독립운동자금 헌금을 하게 되었을때 그때 돈으로 가난한 유학생들이 저들의 일부인 50불, 100불을 쾌척한 기록을 보았다.

오늘날 공수표를 휘두르는 저질적자기 전시운동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 만신창이 된 일부

한인사회

" 무엇이 올 으냐 " 가 문제아니고, "누구가 내편이냐"가 문제인 한인사회의 멍들어 부식된 냄새나는 부분을 보지 않을수 없다.

거기에서 (상식) 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사물의 이치나, 의사 진행의 논리는 사치스러운 장식품이 되고 말았다.

거기서는 이념이 문제가 아니고 집념(?) 이 문제이다. 빵부스러기와 썩은 생선 대가리를 위해서는 거침없이 이합집산, 작당분열의 작태를 보여주고있다.

청년들은 청년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인들은 노인대로 감투와 야합과 술수에 정신 판다.

배신통조, 후안작전

배신통조에 사기통조까지 만연되고 있다. 신성한 책임을 벗고 쓰는 감투로 오인한 일부 몰지각한 무리들이 있다.

그 감투쓰기 위해 만불, 삼만불 부도수표를 남발공약을 마음대로 벌린다. 그런가 하면 계획적인 (계파동)으로 가난하고 어진 정착이민동포들의 등을 치며는 배신사기꾼들이 배주에 후안무치하게 활보하고 다닌다. 그외에 배신, 사기의 형태가 그 종류조차 허다하다.

우리고포 사회의 일부에는 이미 기상천외의 원칙이 통용되고있다. 배신한 사기꾼도 고포들공적모임의 상좌에 앉을수 있다는 원칙이다.

• 도깨비 감투

자칭 감투를 넘어서 자작감투가 있다. 자작감투를 쓰고 대문짝만한 명암을 박아 서울가서 재미고포 대표자 행세를 한다. 북가주한인회, 북가주 상공회의소, 상항한인회, 무손 동지회, 봄가을회, 동서남북회, 그수는 동대문 시장, 잡화상보다 많은것같다.

어두운데서만 쓰고 다니는 도깨비 감투가 이것이다.

● 까마귀무리, 유유상종

남의 돈을 불법행위로 간취하는 자, 공약
을 반박듯이 매신하는 자, 감투는 책임감도
없이 헌신짝처럼 버렸다 또 쓰는 자, 도깨
비 감투 쓰고 헛기침하는 자, 중상모략을 직
업으로 하는 자들이 공포 사회에의 주변을
메들며 (어글리 호리안) 창조에 혈안이
되고 있다.

머더남은 빵부수리기, 썩은 생선대가리
를 찾아 오늘도 열심히 선창가를 찾는 무
리들.

● 노인의 지혜는 어디로 가고,

젊은이의 열정은 어디에 있는가?
장우유서, 군사부 일체의 동양사상을 우
리는 존경한다. 노인의 지혜와 젊은이
의 열정을 합하면 우리에게는 못할일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별행하게도 지혜
와 결별한 노인들, 열정을 포기한 젊은
이들을 본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숙해야 한다.

우리는 노람이나 노망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도의 문제다. 감투에
매력을 느끼는 노인은 추하다.

● 생존의 차원에서

생활의 차원으로
남마다 계속된 심한 비행훈련으로 백악
기뿐만 이상하게 남은 갈매기 조나단 리

빙스론은 드디어 4000피트 상공을 시속 21

4마일 비행하는데 성공하게 되었다.

높이 나는 갈매기만이 멀리 날 수 있다.

조나단 리빙스론이야말로 생존의 차원을
생활의 차원으로 승화시킨 갈매기가 되었
다. 그의 자유에 이르는 꿈은 실현되
었다. 그는 이제 42인치 날개를 가진
단순한 갈매기가 아니다. 대자유를 가
지고 안전 비행을 하게된 조나단 리빙스론
이 동족을 구하기 위하여 그 향에 이르렀
을 때에 4000마리의 갈매기들은 8000의 날
을 가지고 날 리움과 함께 지켜 보았다.

Richard Bach는 소설서두에, (우리들 속에

함께 살고 있는 진정한 조나단 씨겔에...)

라는 아름다운 현사를 부쳤다. 조나단

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지 않았다.

끈임없는 의식화 활동 (Consciousness-

Raising) 인격혁명을 통하여 많은 조나단이

탄생하지 않고서는 우리고포 사회의 희망

을 말할 길이 따로 없다.

" 씨앗길 마을 "

글· 김 중 범

언제 부런가는 모르지만.

조용한 산골마을이 언뜻 쭈근거리기 시작

했다. 이름 모를 전염병이 돌고 있다

는 소문이다. 누구 집에서 나온 소문인

가는 그 아무도 모른다.

이 소문이 온 산골마을에 퍼져자 여기저기

서 쭈근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그 명한 의사를 모셔야 한다.

어떤 사람은 무당을 불러 곳을 함이 좋다

고 했다. 워낙 순박하고 착한 마을 사

람들은 입심 좋은 사람들을 쫓게 마련인

가보다. 드디어는 알지 못할 괴질병이

니 의사보다는 아무래도 무당이 푸닥거리

를 해야 한다. 어느 날 입심 좋은 몇

몇 마을 사람들은 무당을 모셔놓고 곳에

대한 논의와 흥정이 오고 갔다. 무당알

곳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은 즉 들러리

춤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들러리 춤도 갖가지 춤이 해야 한다.

● 부 체 춤

● 갑사댕이 춤

● 병신춤

● 느리나무춤

● 못대춤 등등 그 종류를 헤아릴 수도 없

었다.

어느 날 조용한 마을에는 언뜻 장구 소리

와 쟁과리소리가 언뜻 마을을 뒤 흔들어

놓았다.



전염병 괴신을 전문으로 몰아낸다는 유명한
만신이 조작해낸 괴질병 괴신물이 푸닥거
리가 한창이다. 입심 좋은 사람들은
갖가지 춤을 추기에 바빴다.

이 푸닥거리리는 끝도없이 밤 낮으로 계속되
었다. 처음 푸닥거리를 시작할때 언마
을 사람들이 갖 구경으로 밤새는 줄 몰랐다

무당이 칼날위에서 뛰는데로 그 개를 올렸
다 내렸다.

그러나,

그 병은 날이 갈수록 더 해가기만 했다.

얼은 점점 더 오르고,

토사 강린은 더욱 심해지고

속이 쓰리다며 몸을 뒤틀기 시작했다.

다시 마을은 쭈근대기 시작했다.

이푸닥거리는 무당과 만신에게만 좋은 일인

것 같다는 7녀. 이 소문을 들은 무당

은 더욱 날뛰며 칼을 휘드린다.

더욱 춤들은 거칠어지고

곳소리는 더욱 새차게 나온다.

" 천방지축 먹꿀배 "

" 물러가라 개똥배 "

" 드렸거라 환잡배 "

칼이 점차 사납게, 춤이 점차 거칠게,

다시 마을 사람은 쭈근거리기 시작했다.

무당이 만신을 잘못 만났다는다는 등

저 무당은 전자가 아닌 가짜무당이라는 등

저곳으로 인해 망한사람이 많다는 등

곳 평계로 돈을 많이 놓아다는 등

이영주 치료

타코마 지역

시애틀 지역

진료일시: 화, 목, 토(아침9시~4시)

진료장소: Sun Plaza Suite #10

10209 Bridgeport Way SW

Tacoma, 98449

진료일시: 월, 금(아침9시~4시)

진료장소: Sun Plaza Suite #10

20723 - 76th Ave W,

Blumick, 98020

581-1412

775-3456

마냥들 쭉쭉근 댕적만 끝내는 만신과
무당이 두려워 큰 소리내지 못한다.

그렇지만 입에서 입으로 간간이 무당옥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날

담당하고 지루하던 끝에 마을 어른들은
아무래도 병원인을 찾는일이 급할것 같
다며 의사를 모셔와야 한다는 게다.

우선 의사에게 병이 난지 몇 오레다는 것
과 곳을 했다는 내용과 병 증세가 점점
더 하다는 것과 짐기야는 무당이 칼을 휘
둘렀다는 이야기까지 해야 한다는 게다.

얼마후 의사 한분이 내려왔다.

환자가 어땀나는 것

무당을 조종한 만신은 누구냐는 것

이 귀짜의사는 별에 별것을 다 물었다.

이란 제말 이곳저곳에서 두서없이 들쭉

날뽕 대답하자 의사는 큰 소리로

전염병이라고 떠들어 소문내자가 누구냐는

게다. 잠시 조용했다.

누구도 말하기를 꺼렸다.

누구도 입열어 대답하길 싫어 했다.

아마 무당행패가 두려웠나보다.

사실은 만신과 무당패들이 만들어낸 전염

병괴신 연극이었으니 말이다.

그후 환자를 만나본 의사는 한참만 후에야

전염병이 아난 떠도는 유행성 감기라면서

잠시 휴식이 필요하단다.

마을 사람들은 또 쭉쭉근대기 시작했다.

무당장난에 자기네들이 놀아 났다는 게다
조용한 마을에 떠돌이 무당과 그 떼거리

들로 인해 함심잡하는 인심들이 시끄러워

지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됐으며

어느 틈엔가 폐를 가르게 되었고 그 자질이

간질하는 버릇이 생겼다는 게다.

어느 날엔가는 온마을이 장마철에 대비뚝

을 쌓자는 의견들이 분분했다.

언제 이마일은 장마중이면 의례히 무당을

불러 곳을 하곤 했었다.

그러자 다시 서른 무당은 이리저리 떨어져

다니며 험방 놀기가 바쁘다.

• 김서방에는 뚝을 쌓길 싫어 한다는 동

• 쌓다가 무너지면 더 큰일이 라는 동

• 뚝을 쌓으면 환경을 버린다는 동

• 그 뚝은 언젠가는 무너질 꺼라는 동

결국은 뚝을 쌓으려다 무당 이간질로 시기

를 놓치고만 이 마을은 온통 장마비로 인

심이 흉흉해지고 몇몇집은 집채로 떠내려

가며 무당을 얻었다.

무당은 떠를 만난듯 "비실이 밖"이 노

했다면서 곳을 하라고 흥동질했다.

이곳 저곳서 곳이 다시 시작됐다.

작년 가뭄때는 "기우제"를 하다고 한량하

드니 이제 양우제를 지내야 한다는 게다.

마을은 다시 금한나머지 곳을 시작했다.

그러나 농작물은 실세없이 떠내려만 간다

모든사람들이 한숨을 쉬기 시작했다.

또 무당곳에 속아 났다는 게다.

곳에 지친 마을 사람들은

곳에 피해입은 마을사람들은

곳에 친구 잃은 마을사람들은

길은 한숨을 내뿜아 쉬며 서서히 그 깨를

들어 무당쪽을 쏘아 보며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분란에 못이겨 치를 떠는

사람들은 소리없이 무당집을 향해 길이

가고 있었다.

모두가 쭉쭉근거리기 시작 해 가는 것 같다.

달은 회영성 느리나무 가지에 바꿈 걸력

말이 없었다.

평화의 기도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절망이 있는 곳에 진리를
희의가 자욱한 데 믿음을
절망이 덮인 곳에 소망을
어두운 곳에 당신의 빛을
설음이 쌓인 곳에 기쁨을
전하는 사신이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중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 성 프란시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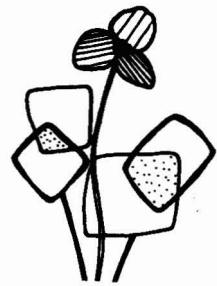
스튜디오꽃집
the flower studio

- 결혼 · 약혼식 꽃
- 실내용화초
- 각종 축하용화본
- 장례식꽃등

— 교포에게 특별봉사 —

★ 전화민주시민 즉시 배달해 드립니다.
4222 EAST MADISON SEATTLE, WA 98112
☎ BUS : 225-5032 RES : 367-1534

제목 : 봄비



이은경

봄비가 창문밖에서 소리없이 내리고 있다. 한창 좋았던 날씨도 잠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조금전 비를 쫓닥맞고 걸어왔던 친구를 생각하며 잠시나마 비를 원망했던 마음을 가다듬고 봄비를 전해주는 고국애의 향수의 나뉘마음은 고향을 달리고 있었다.

노란 개나리가 예뻐고
분홍 진달래가 너무 고와 봄이면 산에 올라
한아름씩 안고 내려오던 개나리와 진달래.

그런 어느 비오는 봄날
나는 제학증명서와 퇴학원서를 떼기위해 학교에 갔다. 이민을 간다는 황홀한 기대감과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눈에 담고는 마지막떠나는 인사말을 할때 까지 나는 즐겁게 얘기할수 있었고 자신있게 헤어질수 있었다. 그러나 은경이는 유학을 가는 거라라며 나를 위로하던 담임 선생님께서 교무실 밖으로 내리는 비를 보며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으면 어쩌니?" 하면서 조금은 쓰던것 같은 우산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오셔서는 현관문에 까지 나와 우산을 퍼줄때 대답하려고 마음먹었던 나의 결심

도 산산히 흩어지고 말았다.

그 우산을 받아쥐고 걸으면서 출국하는 날 공항에 오겠다는 친구들의 아우성에도 아랑곳이 나는 눈물을 주루룩 흘리고 말았다.

그때 내리던 비도 오늘과 같은 조용히 내리는 비였다. 지금은 비가 그친것같다.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은 나는 집에서 긴 편지를 쓰며 하느님께 기도를 드린다.

한국에 살고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정의와 진리를 밝히는 손길로서 축복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시"
- 초우 -

박명기

여로에 찾아온 때이른 초우는
파르스텍 퍼어난
얇은 님에 옷을 입힌다

이제나 피어볼까나
닥아오는 바쁜 숨결에
얼어버린 가슴이야

아침 햇살 사이로 들어낸
얇미운 이슬 무지개는
잃어버린 당신을 떠올리곤
어디론가 숨어 버렸나

촉촉히 내리안은 추억을 밟으며
에서 찾아낸 당신 생각에
발이나 멈추려나.

"삶"

백용기

그냥 머물수 없는곳
내가 가는곳
내가 오는곳
그 틈새,
욕망과 도덕과
또 그 틈새

그냥 머물수 없는곳
틀렸어도 가야 하는곳
맛있어도 갈수 없는곳
욕망에길 도덕에 길

모두가 길인데

그길,

오며, 가며, 머무르며
너절하게 어지르곤

웃고, 또 울곤

다시 그틈새 사이를 오며 가며
방황 하며 가는곳.

보혜사 한방원

保惠師 漢方院

●보약 ●녹용 ●우황청심환 ●첩약

·사단법인 대한침구사협회원
·대한침구사 협회장 표창장 수령
·미국가주 침술사 면허소지

영업시간 : 당분간 평일은 오후5시~9시까지
토요일은 아침9시~오후9시

762-8566 762-6493

8107-22nd Ave. S.W.
Seattle 98108

치질

치질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최소식!!

수십년된 치질도 아프지 않게 치료됩니다.

전화예약 바랍니다.

보혜사 한방원 최창하
762-8566 762-6493

● 신장 개업안내

Lee's Garage

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의 정비 공장은 3년동안 교포들의 사랑을 받아 자라온 Lee's ARCO가 좁은 장소에서 불편과 만족치 못한 서비스를 헤드린것을 항상 부끄럽게 생각하던 끝에 한층더 신속하고 능률적이고 만족한 서비스로 그 사랑에 보답코져 넓은 장소로 옮기게 됨을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Yellow book 170 page 에

He - Clifs Garage로서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자랑스럽게 알려드리고져 하는것은 30년 이상의 자동차 정비경험이 많으신 교포 정비사 두분을 모시고 서비스라는것이 무슨뜻인가를 세삼 깨닫고 최선을 다하여 성심껏 봉사코져 하오니 선생님들의 많은 응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포님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Your Complete Automotiuve Repare Center

. FOREIGN .. DOMESTIC .

INFRA-RED SCOPE TUNE-UP

Alignment

Mafflers

Tires

Computer balance

Lee's Automotive gare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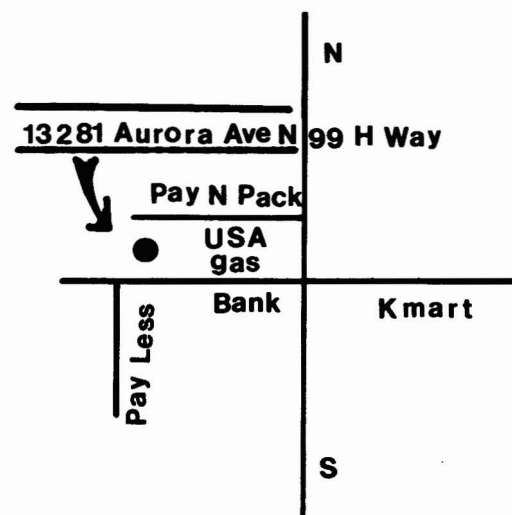
13281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BES 364-8220

RES 775-4785

이 점 래 드 림



서광선생명보험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a mutual company founded in 1845

교육 및 저축 생명보험 퇴직보험 단체보험 건강보험 연금



515 W. HARRISON ST. KENT WA 98031

(206) 622-8966 (Seattle) (206) 924-0350 (Tacoma)
(206) 854-3500 (Kent) (206) 941-5161 (Res)

● 원고 모집

소설 (단, 장편)

수필

생활수기 (이민생활의 체험담)

시

시조

희곡 및 시나리오

이상의 부분에 투고하여 주시면 본지 게재 및 조정의 원고료를 지급 할 예정입니다. (보내실 곳)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 한인회 소식 투고 환영

주변에 알려지지 않은 미담 (불우 이웃 돕기) 이나 교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본 한인회 편집부로 투고해 주시면 본지 한인회 소식란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 특히 이민생활에 필요한 생활 아이디어 및 정보, 교양에 관한 사항을 정착하는 여러 교민들을 위해 투고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 씨애틀 - 와싱턴주 거주 교민 주소록 작성

교민들의 편리를 도모코져 82년, 83년도 교민 주소록을 제작성할 예정이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자신의 주소를 기입 한인회로

보내주시기 앙망 합니다.

보내실 곳)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 한인회보 광고 안내

매일 2,000부로 씨애틀 와싱턴주 거주 교민들에게 배부되는 한인회보지는 바로 교민 자신들의 회보지이며 이국생활에서의 교민들의 동정을 알려주는 눈이기도 합니다. 손수한 봉사단체인 한인회의 광고비로만 충당되는 한인회보는 여러분의 적극 참여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전교민이 구독하는 이 회보지를 통한 광고 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헌신적인 참여도 되고 경영하시는 사업을 위한 최대의 광고 효과도 얻고, 우리의 옛 속담처럼 이거야 말로 일거양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이시간에 연락주시면 바로 교민사회에 봉사하는 그결정이 거룩한 행동이 되심이라 단언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들은 25시 까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 편집 후기

바쁜 생활속에서 없는 시간을 조각어 띄어 다니면서 얻고 수집을 하였고 보다 알찬내용과 정확한 생활정보를 알리기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얼마나 도움이 될지하는 아쉬움을 갖고, 또 한편의 회보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고민들로 부러 얻고가 들어왔으나, 이번호에다 실리지 못한점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 호는 좀더 좋은 내용을 억어야 겠다는 위로와 기대를 남기면서

한인회보

1982년 4월호 통권 제 호

비매품

발행인 : 엄명보

편집인 : 박용목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TEL ; (206) 682 - 4252

• 고국의 소식과 흥취가 가득 담긴
週刊中央 무료배부!!



주간中央
본 주간중앙은 중앙일보 애독자에 한하여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中央日報

광고 및 구독신청은

시애틀 ☎ (206) 838-3155

타코마 ☎ (206) 927-5915

교포사회 최초최대의 종합잡지

월간 코메리칸

본지의 3대 지표

1. 재미동포의 대화의 광장
2. 재미동포의 생활의 길잡이
3. 고국동포와의 사랑의 가교

와싱턴·오레곤주 지차장 유인섭 (IN SUP YU)

본지에 광고를 내시려면

Tel : (206) 625-1464, (206) 885-6400

Address : 15905 NE 98th ST.

Redmond, W.A. 98052

구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구독신청서

Name _____
 Add _____ Apt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Phone _____

①원하시는 구독 해당금액 3MONTHS \$13.00
 6MONTHS \$25.00
 1YEAR \$47.00
 V표를 해주십시오

■본지의 광고제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직접, 서신 혹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자인, 사진등 모든 편집에 응합니다.

■본지는 미국내 교포잡지로써 처음발행되는 유일한 종합잡지이며 최고의 페이지로 독자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광고목적이 본지의 취지에 어긋난 경우에는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MIDWAY UNION

SERVIC(GAS)STATION



** 자동차 정비 업체

* Tune-Up * Brake * Electric

* Engine Overhall

** TIRES

** BATTERIES

**도요다 닛산 혼다등 외국차 전문

23845 PACIFIC HIGHWAY SOUTH
 KENT, WASHINGTON 98031

TEL : (206) 878-7500

(Across the Midway Drive-In)

• 2월후의 새로운 Service로 시작한 저희 Station을 이용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성실함, 풍부한 경험의 기술력으로 책임수리 하고 있습니다.

김명훈

그랜드식품

미래를 지향하는 그랜드 식품점

★ **봄맞이세일** 하나 봐요!! (한인화는 5월가나올때)

- 국산쌀 (80lb) 24.99
- 기린면간장(개울) 3.89
- 고추장면 (10봉식) 1.39
- 각종임산천 용광세일
- 갈비 (LB) 1.59
- 등심불고기(LB) 2.69
- 소면리 (LB) .89

- 배추(LB) 인제나살고
 - 시금치(13) .49
 - 파 (안) 2/49
 - 향긋무(LB) .49
 - 숙갓. 미나리. 총각무. 풋배추
- 가 있나봐요!!

4월호 신간장지 판매중!!



Woong Ki Baik
8512 20th N.E.
Seattle, Wash. 98115
206-525-8334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 98124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MANSOP M. HAHN
12904 SE 45th LN.
BELLEVUE, WA. 98005